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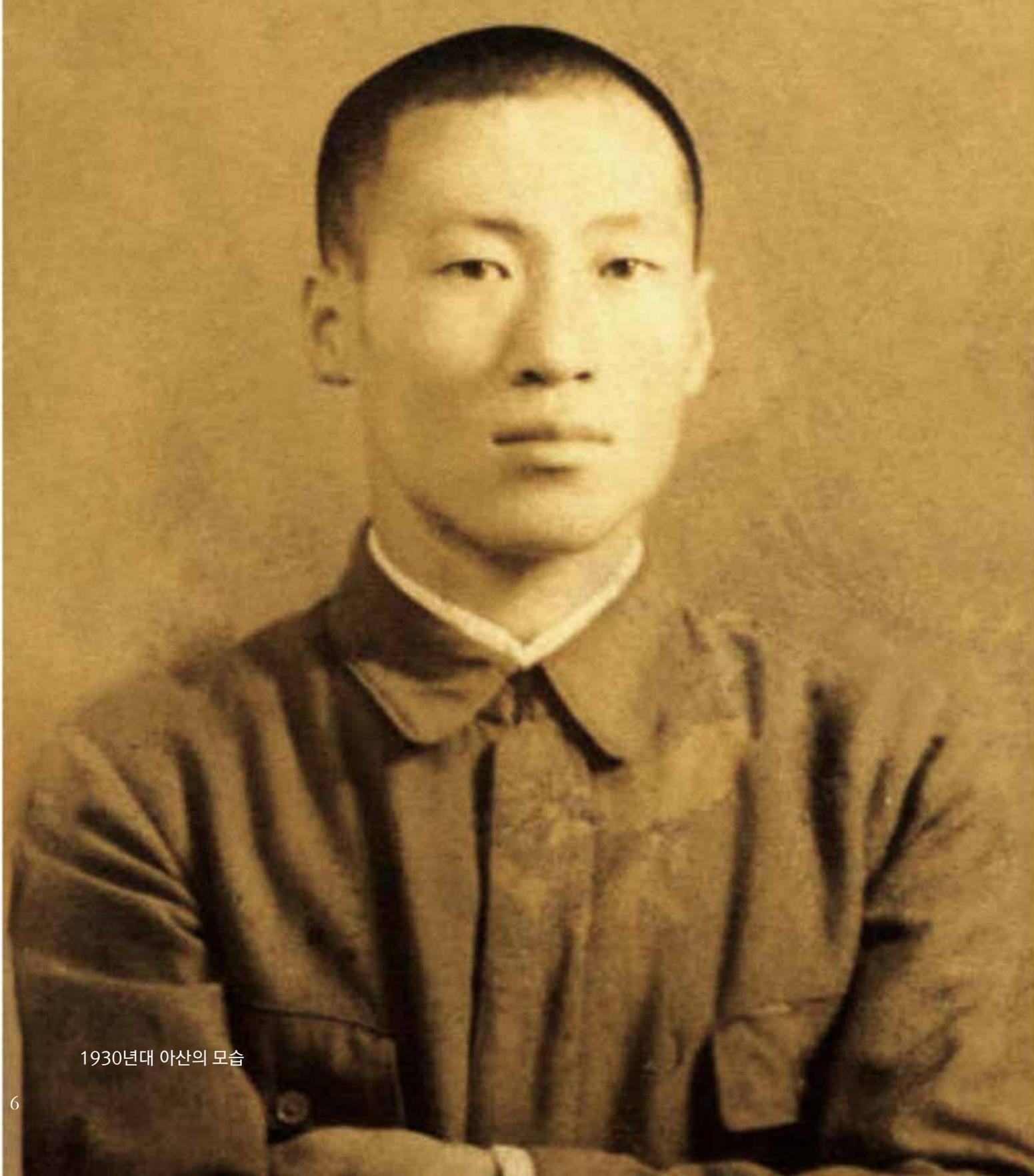
아산나눔재단 연차보고서

2016

아산나눔재단 연차보고서
2016

1. 인사말	8	명예이사장 인사말
	9	이사장 인사말
2. 아산나눔재단 소개	10	개관
	11	비전과 미션
	12	아산나눔재단 설립 5주년 기념 콘퍼런스
	16	2016 주요 행사
3. 아산나눔재단 프로그램	18	기업가정신 교육 사업
	19	히어로스쿨
	20	아산 기업가정신 리뷰
	22	아산서원
	23	아산 프론티어 유스
	24	청년 창업가 지원 사업
	25	정주영 창업경진대회
	26	MARU180
	27	정주영 엔젤투자기금
	28	사회혁신가 지원 사업
	29	아산 프론티어 펠로우십
	30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32	파트너십 온

4. 함께하는 사람들	34	MARU180 Alumni 인터뷰
	36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수료생 인터뷰
	38	파트너십 온 혁신리더 인터뷰
5. 재정 보고	40	사업비 지출현황
	41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43	재무상태표·운영성과표
6. 아산나눔재단 사람들	44	임원진
	45	사무국
	46	출연자



1930년대 아산의 모습

“세상을 밝게 맑게 바르게 보고
이 사회에 보탬이 될 목적으로 살면
할 일은 태산처럼 많다.”

아산 정주영 1983년

명예이사장
인사말



정몽준
아산나눔재단 명예이사장

“ 아산나눔재단은 도움이 필요한 젊은이들에게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아산나눔재단은 2011년에 아버님 서거 10주기를 기념하여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아산나눔재단이 설립되기 40년 전인 1970년대, ‘복지’라는 단어조차 생경하게 느껴지던 때에 아버님께서서는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하셨습니다. 가난과 질병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무의촌에 병원을 세운 것입니다.

아산사회복지재단 설립 이후에도 우리나라는 여러 번의 큰 고비를 맞았지만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등 눈부신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빠른 사회변화와 복잡성의 증가로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더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간다는 청년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아산나눔재단은 어렵고 복잡하지만 꼭 해결해야 하는 사회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해내는 법이다”라는 아버님의 말씀처럼 창의적인 사고와 실천력이 바탕이 된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재단은 창업문화의 토양을 만들어 나가고 영리·비영리 모든 영역에서의 새로운 시도를 계속해서 지원할 것입니다.

아산나눔재단은 도움이 필요한 젊은이들에게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년 전 설립 당시의 초심을 잃지 않으면서, 또 그 수준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함께해주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사장
인사말



이경숙
아산나눔재단 이사장

“ 2017년에도 아산나눔재단의 섬김과 나눔의 활동이 사회 곳곳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새싹의 싱그러움과 생동감이 넘치는 봄날, 연차보고서를 통해 아산나눔재단의 활동을 보여드릴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산나눔재단은 할 수 있다는 믿음, 도전정신과 창의력, 신뢰와 헌신, 타인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2016년은 재단이 설립 5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입니다.

2016년 초 다보스포럼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전 세계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변화와 혁신이 끊임없이 필요한 이때, 아산나눔재단은 기업가(起業家)정신 확산을 통해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해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교육을 확대해 젊은이들이 기업가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비영리 분야 종사자들이 당면한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비영리 분야 발전을 위한 지원도 이어왔습니다.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에도 힘을 보탰습니다. 2014년 개관한 MARU180은 스타트업의 요람으로 성장했고, 5회를 맞은 정주영 창업경진대회는 전국의 예비 창업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늘 힘이 되어주시는 정몽준 명예이사장님과 출연자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재단과 함께하는 청년창업가, 사회혁신가, 재단에 힘을 더해주시는 자문위원, 이사 및 임원진께도 감사드립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직원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2017년에도 아산나눔재단의 섬김과 나눔의 활동이 사회 곳곳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따뜻한 눈길로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개관

아산나눔재단은 2011년 10월 고(故) 아산 정주영 현대 창업자의 서거 10주기를 기념하여 출범한 공익재단입니다.

아산나눔재단은 우리 사회에 아산의 창조 정신을 계승한 ‘기업가정신(起業者精神; Entrepreneurship)’을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합니다.

중·고등학생들이 일상 속의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사업, 예비 창업가들을 발굴하고 교육, 멘토링 등 인프라를 지원하는 창업지원 사업, 비영리 분야에 혁신을 전파할 사회혁신가를 육성하는 사업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비전과 미션

아산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 이룰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아산나눔재단은 더 나은 세상으로의 변화를 이끄는 사람과 기관을 양성하여 사회발전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들은 다음세대가 지닌 무한한 가능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보듬어 줄 것입니다.

비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룰 수 있는 세상

미션

세상을 변화시키는 창업가와 사회혁신가(Social Innovator)가 도전하고 성장하고 나누는 기반을 만듭니다.



도전
더 나은 세상으로의 변화를 이끄는 힘

성장
배움과 실천을 통한 잠재력의 발휘

나눔
더불어 사는 책임주체로서의 성숙한 의식



역량개발
일회성, 시혜성 사업이 아닌 지속적 역량개발 지원 사업

사회적 파급효과
선택과 집중 통해 사회적 파급효과를 발휘하는 사업

자생력 복원
개인과 사회의 자생력 복원을 지원하는 사업



책임성
새로운 시도에 과감하지만 책임 있는 투자

질적 성과
양적 사업성과를 넘어 질적 사업성과 추구

투명성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한 사업진행

“젊은이들이 꿈을 갖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아산나눔재단이 혁신적 기업가정신을 확산시켜 우리 사회에 뜨거운 힘을 불어 넣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산나눔재단이 초심을 잃지 않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를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이종수 한국사회투자 이사장

아산나눔재단 5주년 콘퍼런스

“공익재단은 생태계 조성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아산나눔재단과 같은 지원재단으로서의 공익재단은 생태계의 큰 흐름을 보고 전체 흐름을 짚어주며 예상되는 위기에 대한 해결책 등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유강 드림터치포올 대표

“비영리 분야에서도 R&D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시각을 달리해 시스템의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대부분의 재단이 창의적이지 못한 이유는 경쟁이 없고 고객이 재단에게 불만을 이야기할 수 없는 구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 창조적 시도, 더 큰 임팩트를 위한 접근들이 배제되는 것이고요. 아산나눔재단이 아웃풋(Output)을 넘어 더 큰 임팩트(Impact)를 만드는 혁신적 재단, 창의적 재단이 되길 바랍니다.”

강철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아산나눔재단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원칙과 지향점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공감하는 많은 이들이 더 많은 사람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것이 더 큰 공감을 불러오면서 아산나눔재단의 정체성이 확고해지고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었습니다. 아산나눔재단이 앞으로도 이를 잘 지켜가기를 바랍니다.”

이재열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아산나눔재단 향후 5년 계획

500

억 원

투자

“빌앤멜린다 게이츠 재단(BMGF)에는 ‘Big Problem, Many Solutions’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사회문제는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것입니다. 공익재단은 다른 조직들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파트너와 함께 도와주어야 합니다.”

방대욱 다음세대재단 대표

아산나눔재단 향후 5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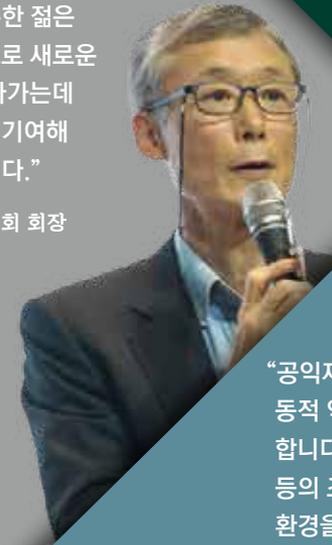
창업자와 사회혁신가

1,000명

육성

“대한민국의 미래는 창업 활성화를 통한 좋은 기업의 탄생에 달려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우수한 젊은 인재들이 창업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데 아산나눔재단이 기여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고영하 엔젤투자협회 회장



“공익재단의 사회적 역할은 동적 역할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사회문제를 기업, 정부 등의 조직과는 다른 특수한 환경을 이용한 새로운 방법으로 해결한다거나 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 조직과 협력하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간 공익재단이 사회발전의 추진자, 파트너, 촉매자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박태규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최근 우리가 직면한 사회문제들은 5차 방정식처럼 풀기 힘든 것들이 많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교육, 미세먼지, 청년실업 등 5차 방정식처럼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겠다고 나서서 용기를 가진 기관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혜영 아쇼카코리아 대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구글 창업가 지원팀이 선택한 방식은 창업가를 통해 기존 프레임워크를 벗어나 혁신적 방법으로 이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특히, 전 세계 창업자들을 연결해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아산나눔재단 마루180과의 파트너십도 그중 하나입니다. 앞으로도 아산나눔재단과 함께 국내 창업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임정민 구글캠퍼스 서울 총괄



“아산나눔재단이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통해 혁신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우리 사회가 가진 제도적 한계가 무엇인지도 함께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인정 ARCON 이사장



아산나눔재단 5주년 콘퍼런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슨 일든 이를 수 있다”

2016 주요 행사

● 01.16.
“제1기 아산 프론티어 유스” 수료식



● 02.12.
“아산나눔재단 x 여썸스쿨 2016 히어로스쿨”
청년 강사 교육 수료식



● 02.18.
아산나눔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업무협약 체결

● 02.23.
“제5기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모집

● 02.27.
2016년 “파트너십 온” 협약식



● 02.27.
MARU180·구글 캠퍼스 입주기업 모집

● 03.07.
“제5회 정주영 창업경진대회” 개최

● 03.09.
“아산 기업가정신 리뷰” 5기 집필 개시 간담회



● 03.19.
“제4기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수료식



● 04.12.
“제2기 아산 프론티어 유스” 모집

● 04.14.
MARU180 개관 2주년



● 04.21.
아산나눔재단-에어비앤비 업무협약 체결



● 06.09.
“제5기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입학식



● 06.17.
“아산서원 8기” 졸업식



● 07.21.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2016 N_FORUM” 개최



● 07.26.
“제2기 아산 프론티어 유스” 입단식

● 08.11.
“정주영 창업경진대회”
2016 Alumni Gathering 개최

● 08.24.
“제5회 정주영 창업경진대회” 결선



● 08.25.
“아산 기업가정신 리뷰” 6기 집필 개시 간담회

● 09.01.
MARU180·구글 캠퍼스 입주기업 모집

● 10.07.
아산나눔재단 설립 5주년 기념행사



● 11.01.
“파트너십 온 3기” 모집

● 11.19.
“아산나눔재단 x 여썸스쿨
2016 히어로스쿨” 결과공유회



● 12.13.
아산나눔재단-시만텍코리아 업무협약 체결



● 12.17.
“제5기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수료식

기업가정신 교육 사업



아산나눔재단은 2016년부터
기업가정신 교육기관인
'어썸스쿨'과 함께
'히어로스쿨'을 진행합니다.

히어로스쿨 현황

 참여 학교 수	77개
 참여 학생 수	2,100명

2016년 12월 기준

아산나눔재단은 2016년부터 기업가정신 교육기관인 '어썸스쿨(Awesome School)'과 함께 '히어로스쿨(Hero School)'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히어로스쿨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세상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지원하는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기업가정신 교육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국내 초·중·고교에 기업가정신이 정규과목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히어로스쿨은 집중 교육을 이수한 각 지역의 청년강사가 전국의 중·고등학교로 파견되어 직접 수업을 진행합니다. 과정은 1일 단기과정에서 1년 장기과정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은 자신을 돌아보고 이해하는 '히어로의 탄생'과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하고 해결하는 '히어로 프로젝트'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전국의 총 77개 학교에서 히어로스쿨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아산 기업가정신 리뷰

우리나라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전략, 마케팅, 인사 등 경영학 이론과 생생한 사례를 통해 대학생들이 실용적, 비판적 사고력을 함양하는 동시에 토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마련된 교육용 사례집입니다.

AER 현황

 총 발간 사례	20개
 대학(원) 수업활용	58개

2016년 12월 기준

아산나눔재단은 대학(원) 경영학 교육용 사례집(Case Study) '아산 기업가정신 리뷰(AER, Asan Entrepreneurship Review)'를 발간합니다. AER은 우리나라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전략, 마케팅, 인사 등 경영학 이론과 생생한 사례를 통해 대학생들이 실용적, 비판적 사고력을 함양하는 동시에 토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마련된 교육용 사례집입니다.

사례집 개발에는 국내 우수 경영대학 교수와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며, 해당 기업의 창업자, 임직원, 투자자 등 다양한 현업 종사자들의 인터뷰와 시장 자료, 기업 실적 데이터 등을 포함해 토론 수업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아울러 교수자가 수업과 토론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쉽고 상세한 내용을 담은 티칭노트를 제공합니다.

현재까지 총 20개의 사례가 발간되었으며, AER 홈페이지 (www.asan-aer.org)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2016 AER 신규 발간사례

<p>〈네이버〉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가정신의 장(場), 네이버</p>	<p>〈데브시스터즈〉 쿠키런! 쿠키들의 용감한 질주 - 데브시스터즈</p>	<p>〈데이블〉 Winning Business Model</p>	<p>〈딜라이트〉 열정과 냉정 사이에서: 딜라이트의 비즈니스 모델</p>
<p>〈베어베터〉 Mission Impossible? '이익ZERO' 고용 경영</p>	<p>〈시몬느〉 "Why not us?" 명품 핸드백 시장의 히든 챔피언</p>	<p>〈쏠리드〉 사람과 기술이 함께 성장하는 기업 - 쏠리드</p>	<p>〈쏠리드〉 사람으로 시작하여 자본시장까지 - 쏠리드</p>
<p>〈엔씨소프트〉 온라인 게임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한 도전 - 엔씨소프트의 조기 글로벌화</p>	<p>〈엘로모바일〉 모바일 벤처 연합군 - 엘로모바일</p>	<p>〈NHN 엔터테인먼트〉 모바일 게임 플랫폼 변화의 기회와 위협 - NHN 엔터테인먼트</p>	<p>〈SK encar〉 창조경제를 위한 기업 생태계 - 사내벤처(ICV)에 성공한 SK encar</p>



아산서원

아산서원은 대학(원)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으로, 매년 50명의 원생을 선발해 인문학 교육을 실시하고 해외 인턴십 기회를 제공합니다.



아산 프론티어 유스

아산 프론티어 유스는 비영리 분야에 관심있는 대학생을 선발해 NGO 인턴십, 임팩트 교육, 글로벌 스터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미국 워싱턴 카네기국제평화연구소(CEIP) Douglas Paal 부소장과 함께한 제8기 아산서원 워싱턴 펠로우

아산서원 현황

 수료생	239명
 평균 교육시간	1,320시간

2016년 12월 기준

아산나눔재단은 민간 싱크탱크인 아산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아산서원'을 설립했습니다. 아산서원은 대학(원)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으로, 매년 50명의 원생을 선발해 인문학 교육을 실시하고 해외 인턴십 기회를 제공합니다.

아산서원 원생으로 선발되면 1년간 아산학사에 입학해 최고의 교수진으로부터 동서양 고전을 바탕으로 한 역사, 철학, 정치, 경제 등을 배울 수 있으며, 미국 워싱턴과 중국 베이징에 있는 엠네스티, 칭화-카네기 글로벌정책센터 등의 국제적 싱크탱크에서 관련 업무 경험도 쌓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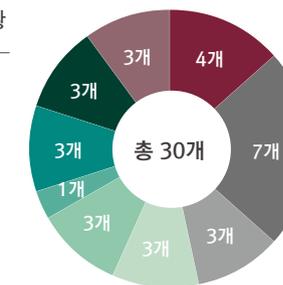
2012년 설립 이후 아산서원을 통해 총 239명의 졸업생이 배출되었습니다.

아산 프론티어 유스 현황

 수료생	 평균 교육시간	 글로벌 스터디 현황
58명	200시간	4개국 24개 기관

제2기 인턴십 참여기관 현황

- 복지시설
- 복지법인
- 청소년/아동
- 자원봉사
- 국제개발
- 환경
- 문화예술
- 사회적기업
- 시민권리



2016년 12월 기준

아산나눔재단은 차세대 비영리 인재 육성을 위해 '아산 프론티어 유스(Asan Frontier Youth)'를 운영합니다. 아산 프론티어 유스는 비영리 분야에 관심있는 대학생을 선발해 NGO 인턴십, 임팩트 교육, 글로벌 스터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참가자들은 5개월 동안 복지, 국제구호, 인권 등과 관련된 국내 비영리기관에서 인턴십을 통해 실무경험을 쌓게 됩니다. 더불어 소셜섹터맵핑(사례연구, 연사특강, 현장방문), 사회혁신 프로젝트(문제 발굴 및 해결), 글로벌 스터디(해외 혁신 비영리기관 탐방) 등을 거쳐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아산 프론티어 유스를 거쳐 간 수료생은 58명, 인턴십 참여기관은 44개에 달하며, 약 200시간의 교육을 수료했습니다.

청년 창업가 지원 사업



정주영 창업경진대회

아산나눔재단은 2012년부터 '정주영 창업경진대회'를 열어 전국에 기업가정신을 확산하는 동시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스타트업을 발굴 및 지원합니다.

정주영 창업경진대회 현황

 지역 설명회 참가자	4,769명
 초기 창업팀 지원	2,386명
 5회 평균 경쟁률	53:1
 사업 지속률	73%

2016년 12월 기준

아산나눔재단은 2012년부터 '정주영 창업경진대회'를 열어 전국에 기업가정신을 확산하는 동시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예비 창업자와 스타트업을 발굴 및 지원합니다.

정주영 창업경진대회는 매년 3월부터 8월까지 총 6개월간 진행되며, 스타트업 창업자 강연, 전문가 멘토링,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결선대회 등으로 구성됩니다.

정주영 창업경진대회에서 사업실행 단계에 진출한 팀들은 아산나눔재단이 운영하는 창업지원센터 'MARU180'에 입주해 9주간 실제 사업을 진행하며, 우수 액셀러레이터, 벤처캐피털 등 창업 분야 전문가들의 전담 멘토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산나눔재단은 대회 개최 이후 현재까지 총 45개의 팀을 발굴했으며, 대회를 거쳐 간 팀들은 '정주영 창업경진대회 알럼나이(Alumni)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MARU180

아산나눔재단이 운영하는 'MARU180'은 청년 창업가들에게 창업에 필요한 인프라, 네트워크, 교육 등 종합적 솔루션을 제공하는 창업지원센터입니다.

MARU180 운영 현황

 방문객 수	391,737명
 해커톤·데모데이 등 스타트업 관련 행사 개최	1,247건
 Alumni 스타트업 수	118개

2016년 12월 기준

아산나눔재단이 운영하는 'MARU180'은 창업에 필요한 인프라, 네트워크, 교육 등 종합적 솔루션을 제공하는 창업지원센터입니다. 2014년에 문을 연 MARU180은 지하 1층, 지상 5층, 1,090평 규모의 건물로 스타트업 사무공간, 코워킹 카페, 이벤트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산나눔재단은 MARU180을 통해 국내 유망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탈, 액셀러레이터 기업 등에 사무공간을 지원하고 있으며, 스타트업에 필요한 교육 및 네트워킹 모임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지하 이벤트홀을 무료로 대관해 줍니다. MARU180에서는 해커톤, 데모데이, 각종 강연 등의 행사도 수시로 진행되며, 창업생태계 내 유관기관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MARU180 Alumni들*의 직원 수는 입주 당시 271명에서 졸업 시점에는 707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동기간 투자금 또한 108억에서 817억 원으로 8배 증가한 바 있습니다.

*졸업사 44개: 장기 입주사 기준

정주영 엔젤투자기금

2012년 2월, 아산나눔재단은 국내 창업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정주영 엔젤투자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정주영 엔젤투자기금 현황

 수혜 기업 수	455개
 총 조달기금	2,888억 원

2016년 12월, 출자 조합을 통한 간접투자 기업 및 총액 기준

2012년 2월, 아산나눔재단은 국내 창업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정주영 엔젤투자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아산나눔재단은 정주영 엔젤투자기금을 통해 엔젤투자자, 액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과 협력해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를 진행합니다. 또한, 정주영 창업경진대회 수상팀에게는 직접투자도 검토합니다.

아산나눔재단은 정주영 엔젤투자기금 조성 이후 현재까지 455개 기업에 총 2,888억 원을 조달한 바 있습니다.

사회혁신가 지원 사업



아산 프론티어 펠로우십

아산 프론티어 펠로우십은 사회적 기업, 임팩트투자, 비영리 단체 등 소셜 섹터의 차세대 리더를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2016년 파견 펠로우 현황

이름	파견시기	파견기관 명 / 담당 업무
강보라	2016.01.16. - 2017.01.10.	D3Jubilee (San Francisco, C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팩트 투자 관리 및 운영 • 시장 조사 및 섹터 분석 • 홍보 및 파트너십 관리
김수영	2016.01.16. - 2017.01.10.	Jubilee JumpStart (Washington, D.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금 및 후원자 관리 • 사업 기획 및 성과 관리
이강권	2016.01.16. - 2017.01.10.	Goodwill Industry International (Rockville, M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시장 리서치 및 분석 • 파트너 커뮤니케이션 등
황선하	2016.05.14. - 2017.05.08.	World Vision International (Washington, D.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개발국대상 Literacy Boost 프로그램 분석 및 모델 개발 • Girls' Education 프로그램 개발

아산 프론티어 펠로우십은 사회적 기업, 임팩트투자, 비영리 단체 등 소셜 섹터의 차세대 리더를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국내 영 프로페셔널(Young Professional)에게 1년 동안 미국 NGO, NPO, 사회적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아산나눔재단은 2014년에 4명, 2015년에 6명, 2016년에 4명의 펠로우를 해외에 파견했습니다. 펠로우들은 해외 기관에서 실무경험을 쌓고 글로벌 펠로우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비영리 분야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경영 능력과
리더십,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전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현황

 수료생	149명
 참여 기관수	115개
 해외방문연구조사 현황	15개국 105개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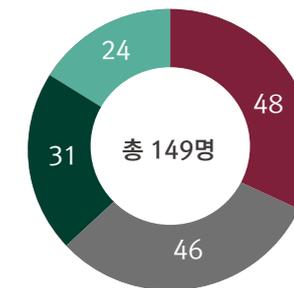
2016년 12월 기준

아산나눔재단은 비영리 분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차세대 리더 육성을 위해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Asan Frontier Academy)'를 운영합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비영리 분야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경영 능력과 리더십,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전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수강생들은 경영(전략, 인적자원, 마케팅, 재무회계)과 리더십, 사회혁신, 캡스톤 프로젝트로 구성된 통합 교육을 통해 기관 발전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전문성을 기를 수 있습니다. 교육은 영역별 최고 전문가의 강의와 함께 토론, 케이스스터디, 혁신기관 필드트립, 해외방문연구조사로 다양하게 구성됩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통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115개 기관에서 149명의 수료생을 배출했고, 아카데미 출신 동문들이 결성한 비영리 네트워크(N_SQUARE)의 활발한 활동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비영리 분야 발전을 위한 지식을 공유하는 'N_TALK', 비영리 현안에 대해 토론하는 콘퍼런스 'N_FORUM'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수료생 경력현황 (지원 시 비영리 경력 기준)



● 5-8년	31명
● 8-12년	48명
● 12-16년	46명
● 16년 이상	24명

2016년 12월 기준

수료생 소속기관 규모 (중복제외)



● 0-10명	37개
● 11-20명	20개
● 21-40명	27개
● 41-100명	16개
● 101명 이상	15개



파트너십 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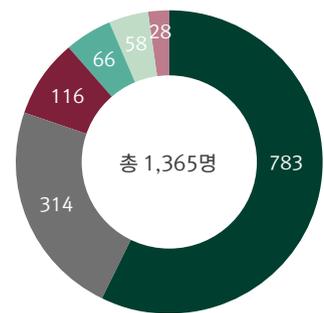
파트너십 온은 청소년 관련 비영리기관을
 ‘벤처 기부(Venture Philanthropy)’
 방식을 통해 재정적·비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산나눔재단은 2015년부터 비영리기관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파트너십 온(Partnership ON)’을 진행합니다. 파트너십 온은 청소년 관련 비영리기관을 ‘벤처 기부(Venture Philanthropy)’ 방식을 통해 재정적·비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파트너십 온은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로 혁신적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하는 비영리기관을 ‘혁신리더’로 선정해 다각도로 지원합니다. 전략, 홍보, 재무·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를 투입해 밀착 자문하고 컨설팅 및 교육을 실시하는 비재정적 지원과 한 기관당 연간 최대 2억 원씩 3년간 지원하는 재정적 지원을 함께 진행합니다.

아산나눔재단은 2015년 7개, 2016년 3개 등 총 10개의 비영리기관을 혁신리더로 선발했으며, 앞으로도 저소득, 탈북·다문화, 학교 밖, 장애청소년 등 다양한 위기 청소년들을 돕는 비영리기관에 대해 폭넓은 지원을 꾸준히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 폭력피해 청소년 (학교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 등)	783명
● 저소득청소년	314명
● 학교 밖/비행/미혼모 청소년	116명
● 기타(부모수감)	66명
● 장애청소년	58명
● 탈북청소년	28명

2016년 12월 기준

혁신리더	10개 기관
1·2기 교육 및 워크숍 총 진행 시간	470시간

2016년 12월 기준

함께하는 사람들



MARU180 Alumni 인터뷰

MARU180 졸업사 가우디오랩(G'Audio Lab) 오현오 대표

“ 스타트업 생태계의 축소판
MARU180에서의 성장 ”



사진 왼쪽에서 첫 번째 가우디오랩(G'Audio Lab) 오현오 대표

VR 오디오 솔루션 전문기업 가우디오랩은 2015년 8월에 입주해 2016년 10월에 졸업한 마루180의 알루미니(Alumni)입니다. 차세대 오디오 국제표준(MPEG-H 3D Audio)으로 채택된 자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VR&AR 챌린지 2016'에서 대상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을 받았을 정도로 뛰어난 기업이기도 합니다. 오현오 대표는 마루180에 입주해 있던 기간에 가우디오랩이 많이 성장할 수 있었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우디오랩은 마루180에 어떻게 처음 오게 되었을까요? 사실 마루180 5층에 있는 퓨처플레이에 지인이 있었어요. 사무실에 놀러 오라고 하셔서 마루180에 가게 되었는데, 시설이나 모든 면에 반해버렸죠. 그때 마루180을 처음 알게 되었고, 모집 기간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어려운 경쟁률을 뚫고 입주하게 되었을 때 정말 기뻐요.

연신 마루180에서의 좋은 추억을 떠올리는 오 대표에게 가장 좋았던 점은 무엇이었냐고 물었습니다. 마루180에 입주하던 그

순간이 가장 먼저 떠오르네요. 그동안 추운 곳에서 참 고생 많이 했구나 싶었죠. 따뜻한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루180 안에 있으면서 스타트업 생태계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었어요. 뭐니뭐니해도 동기부여가 되었던 것은 함께 일하는 스타트업의 열기였습니다. 열정으로 뭉친 이들이 모두 모인 공간이어서 배울 점도 많았습니다. 졸업하기 싫어서 어떻게든 졸업을 연장해 보고자 했는데 직원 수가 많이 늘어서 결국 나올 수밖에 없었죠.

마루180 입주 전후, 가우디오랩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마루180에 입주할 때는 직원이 4명이었어요. 저희가 1년 2개월 만에 졸업했는데, 졸업할 때 직원이 19명이 되었죠. 이렇게 폭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마루180 덕분이예요. 스타트업이 발전할 수 있는 요소를 마루180 안에서 발견했고, 그것을 성장시키는 방법도 그 안에서 배웠습니다.

가우디오랩은 마루180에 입주한 투자사 중 하나인 '캡스톤파트너스'로부터 투자를 받은 회사이기도 합니다. 같은

건물, 같은 층에 투자사와 함께 입주해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 회사의 투자사와 같은 층에서 일한다는 것은 부담이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좋은 시너지가 났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사 입장에서 직접 투자한 회사가 바로 앞에 있으니 소통하기 쉽고, 저희에게 많은 기회를 주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파트너사나 입주사와 교류가 활발해서 다양한 기회를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미국 진출을 준비하고 있었을 때, 성공적으로 미국에 진출한 '샌드버드'라는 회사가 함께 마루180에 입주해 있어 자연스럽게 조언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투자사에 대한 정보나 최근 고민, 해결책 등 여러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좋았지요.

오 대표는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오는 법이라며, 예비 창업인을 위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약 유행이나 돈을 따라갔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단지 중학교 때 오디오가 너무 좋아서, 내가 느끼는 이 감동을 함께 느끼고 싶다고 생각해 이 일을 하게 되었고, 꾸준히 목표를 향해 달려다 보니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창업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과는 같습니다. 정주영 명예회장의 말씀처럼 '해보기는 했어?'라는 기업가정신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우디오랩은 지금도 그 말씀을 새기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 가우디오랩의 목표는 확실했습니다. 2017년에는 2016에 한국에서 보여준 성과를 세계 무대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글로벌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VR 시장을 확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 대표는 아산나눔재단과 연차보고서를 보게 될 독자들에게 당부의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마루180에 처음 입주했을 때 스타트업의 전당에 들어갔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마루180의 졸업사라는 것이 자랑스롭습니다. 아산나눔재단의 상징과 같은 정주영 명예회장의 도전정신이 제게 큰 에너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루180에서의 좋은 기억을 발판 삼아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는 기업이 될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수료생 인터뷰

제5기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박재희 님

“ 새로운 자극과 도전을 통한 변화의 시작 ”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비영리 분야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전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경영, 리더십, 사회혁신, 캡스톤 프로젝트 등으로 구성된 통합 교육과 함께 해외 방문연구조사 기회도 제공되는데요, 7개월의 교육과정은 일과 학업을 병행해야 하는 만큼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비영리 종사자가 수료하기에 쉽지 않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훌륭히 수행한 5기 수료생 박재희 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박재희 님이 처음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였을까요? 비영리 조직에서 5년 정도 일을 하다 보니, 조직 내 많은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조직을 둘러싼 환경도 시시각각 변하는데 저만 그대로인 느낌도 들었고요. 제가 몸담고 있는 조직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의심도 생겼습니다. 팀장인 제가 팀원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했고, 제가 하는 일이 조직의 성장과 변화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힘든 선발 과정을 거쳐 아카데미에 입학한 박재희 님은 교육과정 중에서도 ‘캡스톤 프로젝트’가 가장 기억에 남고, 도움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캡스톤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황에 맞는 전략적 리더십을 실천해 볼 수 있는 과정입니다. 캡스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내가 하는 일’과 ‘함께 일하는 사람’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다 보면 회의를 정말 많이 하게 되는데, 조원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그 안에서 저의 역할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각기 다른 인사이트를 가진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저만의 통찰력을 기를 수도 있었고요. 또, 전략적인 결정을 내리고, 리더십을 어떻게 하면 기를 수 있을지 성찰해보는 기회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박재희 님은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통해 얻은 것이 또 있다고 했습니다. 아카데미를 수료하면서 저는 교육 외에도 두 가지를 더 얻었습니다. 바로 ‘책 읽는 습관’과 ‘사람’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책을 읽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교수님들께서 주시는 리딩 자료와 도서목록 등을 통해 지적 자극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또, 함께 아카데미를 수료한 동기들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같은 필드에서 비슷한 고민을 하는 이들을 만날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아카데미를 통해 30명의 소중한 동기들을 만났거든요. 실제로 동기들로부터 소개받은 톨을 제가 속한 조직에서 직접 활용해 보기도 했습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통해 참 많은 자산을 얻었던 것이지요.

박재희 님의 2017년 목표는 무엇일까요? 2017년을 ‘수료 원년’이라고 표현한 그의 포부는 평범하면서도 비범했습니다. 제가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통해 배운 것을 가정, 직장, 제가 속해있는 커뮤니티 등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교육을 이론으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제 삶에서 구현하여 의미 있는 변화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봐야겠다고도 생각하고요.

끝으로 아산나눔재단과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 감사 인사도 건넵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저에게 ‘성장의 기회’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배우러 온다고만 생각했는데 아카데미 과정은 세상이 품고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도록 도와주었고, 새롭게 도전할 수 있도록 저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장기적 교육을 받기란 참 어려운 일인데요,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준 아산나눔재단에 감사 드립니다.





PARTNERSHIP ON

파트너십 온 혁신리더 인터뷰

파트너십 온 혁신리더 '세상을 품은 아이들' 명성진 이사장

“ 주변에 대한 작은 관심이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



아산나눔재단과 '함께 하는 사람들' 세 번째 주인공은 바로 '파트너십 온' 프로그램 혁신리더로 선정돼 올해로 3년 차를 맞은 '세상을 품은 아이들(세품아)'의 명성진 이사장입니다.

세품아는 인천·부천 지역 범죄 청소년을 대상으로 통합적 치유 솔루션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아산나눔재단과는 지난 2015년 파트너십 온을 통해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세품아에게 아산나눔재단의 파트너십 온은 어떤 의미인지, 명 이사장을 만나 직접 들어보았습니다.

세품아가 파트너십 온 혁신리더로 지원한 동기는 지원방식에 대한 매력이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비영리기관 지원은 단일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적 재정 지원으로 이뤄지지만, 파트너십 온은 연간 2억원의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에 대한 교육·자문·컨설팅 등의 비재정적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좋았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2년간 파트너십 온과 함께하며 세품아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VP(Venture Philanthropy) 파트너스 회의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재단과 자문위원의 참석 하에 진행되는 VP 파트너스 회의의 특성상 혁신리더에 대해 아산나눔재단이 고도로 관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상호 간 투명성을 바탕으로 진행된 일을 점검하고 새로운 전략 수립의 확실한 지표를 세울 수 있어 고도의 관여가 오히려 큰 힘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세품아를 대상으로 진행한 '브랜드 컨설팅'은 외부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세품아의 새로운 BI(Brand Identity)가 해외 'iF Design Award'에서 본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명 이사장은 수상의 결과도 의미 있지만 브랜드 컨설팅 자체가 굉장히 획기적이었다고 회상합니다.

이외에도 세품아에는 작년 한 해 좋은 일이 많았습니다. 청소년 회복지원 시설 인가를 받았고, 그룹홈을 확대했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세품아가 6호 시설로 인가를 받은 것은 아이들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또, 청소년 회복지원 시설의 기본이 되는 그룹홈을 확대함으로써 아이들에 대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훗날 아이들이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지요. 이는 파트너십 온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새로운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세품아는 2016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2017년에도 아이들의 자립을 위한 구조를 만드는 데 힘쓸 계획이라고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아이들을 지원하는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2016년에 아산나눔재단의 지원을 받아 교사 양성에 대한 이론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집중 워크숍, 임상 및 다양한 실천을 통해 이를 발전시켜보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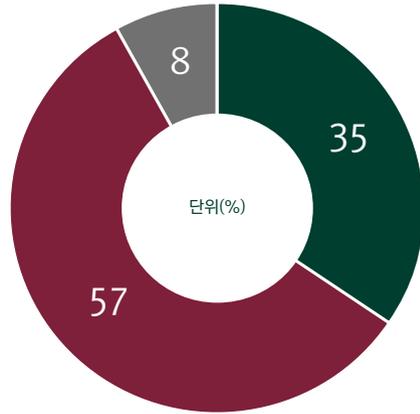
파트너십 온에 대해서도 칭찬과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산나눔재단의 파트너십 온은 다른 지원기관에서는 할 수 없는 혁신적 프로그램입니다. 과감한 투자를 통해 세상을 바꿔나가는 이들을 성장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파트너십 온이 지속된다면 혁신리더 간 네트워크는 더욱 끈끈해질 것이고, 영향력은 확산될 것입니다. 파트너십 온은 단연 비영리 분야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명 이사장은 인터뷰 말미, 아산나눔재단의 연차보고서를 접할 모든 분께도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거대한 무엇이 아닙니다. 작은 가슴아픔, 한 방울의 눈물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도록, 그리고 이를 끌어가는 사람들이 그 힘을 잃지 않도록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작은 관심이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사업비
지출현황

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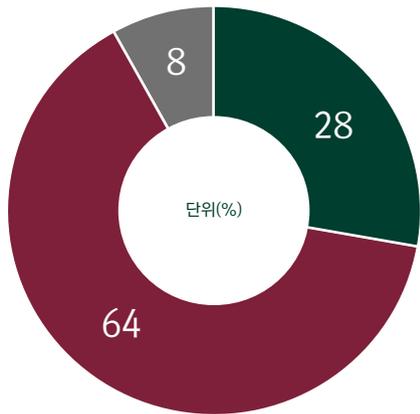


총계
₩ 101억 원

구분	금액(원)	비율(%)
● 청년 역량강화 및 창업지원	35억	35
●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58억	57
● 운영비	8억	8

(*) 해당연도 목적사업을 위한 자산취득액 등이 포함된 금액임

2015년



총계
₩ 115억 원

구분	금액(원)	비율(%)
● 청년 역량강화 및 창업지원	32억	28
●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74억	64
● 운영비	9억	8

(*) 해당연도 목적사업을 위한 자산취득액 등이 포함된 금액임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재단법인 아산나눔재단
재단 이사회 귀중

재무제표에 대한 보고

우리는 별첨된 재단법인 아산나눔재단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동 재무제표는 2016년 12월 31일과 2015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운영성과표 및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 회계정책에 대한 요약과 그 밖의 설명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경영진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대한민국의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인의 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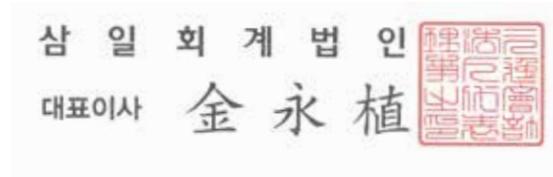
우리의 책임은 우리가 수행한 감사를 근거로 해당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며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얻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재무제표의 금액과 공시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절차의 수행을 포함합니다. 절차의 선택은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에 대한 평가 등 감사인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인은 이러한 위험을 평가할 때,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및 공정한 표시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고려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또한 재무제표의 전반적 표시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의 합리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합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감사의견

우리의 의견으로는 재단법인 아산나눔재단의 2016년 12월 31일과 2015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 동일로 종료 되는 양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대한민국의 일반기업회 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 3월 22일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2017년 3월 22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까 지의 기간 사이에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 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
운영성과표

재무상태표

과목	2016년		총계	2015년		총계
자산	I. 유동자산	127,772,985,559	620,935,397,893	177,652,278,451	616,266,636,677	
	(1)당좌자산	127,772,985,559		177,652,278,451		
	II. 비유동자산	493,162,412,334		438,614,358,226		
	(1)투자자산	409,196,251,557		399,213,560,249		
	(2)유형자산	83,782,451,277		39,232,381,057		
	(3)무형자산	83,709,500		68,416,920		
	(4)기타비유동자산	100,000,000		100,000,000		
부채	I. 유동부채	573,121,085	2,439,416,948	289,695,313	456,653,707	
	II. 비유동부채	1,866,295,863		166,958,394		
자본	I. 출연재산	587,004,639,500	618,495,980,945	587,004,639,500	615,809,982,970	
	II. 이익잉여금	31,491,341,445		28,805,343,470		
부채 및 자본 총계			620,935,397,893		616,266,636,677	

운영성과표

과목	2016년	2015년
I. 사업수익	12,539,786,754	12,216,277,756
(1)고유목적사업	207,223,364	147,667,483
(2)수익사업	12,332,563,390	12,068,610,273
1.이자수익	4,272,536,755	6,898,831,222
2.배당금수익	7,123,940,149	4,541,481,881
3.임대료수익	695,874,160	474,704,193
4.관리비수익	240,212,326	153,592,977
II. 사업비용	9,845,913,687	8,167,006,779
(1)고유목적사업비	8,174,405,963	6,683,941,039
(2)일반관리비	1,671,507,724	1,483,065,740
III. 사업이익	2,693,873,067	4,049,270,977
IV. 사업외수익	6,311,943	745,776,771
V. 사업외비용	201,736	51,025,579
VI. 법인세등차감전순이익	2,699,983,274	4,744,022,169
VII. 법인세등	13,985,299	60,725,377
VIII. 당기순이익	2,685,997,975	4,683,296,792

단위 : 원

임원진



이경숙 이사장
아산나눔재단
이사장



권 찬 이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부회장



김도현 이사
국민대학교
교수



김지훈 이사
스톤브릿지캐피탈
대표이사



김진우 이사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안성기 이사
신영균예술문화재단
이사장



이석연 이사
법무법인서울
대표변호사



이재열 이사
서울대학교
교수



정남이 상임이사
아산나눔재단



정 준 이사
솔리드
대표이사



함재봉 이사
아산정책연구원
원장



송지혜 감사
베인앤드코리아인크
파트너



오세현 감사
현대중공업
준법경영실장

정렬은 가나다 순

사무국

이사장
Chairperson

이경숙

상임이사
Executive Director

정남이

스타트업팀
Startup & Entrepreneurship Team

이혁희 팀장
강혜진 매니저
김아람 매니저
김주은 매니저
백하정 매니저
이희상 매니저
최유진 매니저

글로벌리더팀
Global Leadership & Education Team

박지훈 팀장
백민경 매니저
안태호 매니저
천성우 매니저

파트너십팀
Partnership Team

차선주 팀장
권현우 매니저
전경호 매니저
조상욱 매니저

경영지원팀
Management Support Team

경은정 팀장
김미경 매니저
김민우 매니저
김소진 매니저
이고은 매니저
전송이 매니저
최유나 매니저

아산나눔재단 탄생에
 뜻을 함께 모아주신
 출연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법인	현대중공업 그룹	KCC	
	현대백화점 그룹	현대산업개발	
	현대종합금속	한국프랜지공업	
	현대종합상사		
개인	정상영	정몽준	정몽근
	정몽규	정몽석	정몽윤
	정몽진	정몽익	정지선

기획 및 편집	아산나눔재단
발행	아산나눔재단
디자인	슬로워크
발행일	2017. 04.
주소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104 1층
전화번호	02. 741. 8220
홈페이지	www.asan-nanum.org
이메일	info@asan-nanum.org
블로그	blog.naver.com/asan_nanum
페이스북	www.facebook.com/TheAsanNanum

연차보고서에 수록된 자료 및 콘텐츠의 저작권은 아산나눔재단에 있습니다.

Copyright © 2017 The Asan Nanum Foundation, All rights reserved.